월요논단

워라밸 세대와 여가

정 구 철
제주국제대학교 명예교수

"사람들의 세대는 나뭇잎들의 세대와 같다.… 사람들의 경우도 같다. 한 세대가 오면, 한 세대는 간다" 고대 그리스 서사시인 호메로스의 말이다. 공감되지만 새로운 세대등장이 너무 빠르다. 이해할 겨를도 없이 갈등 구조로 고착된다. 흔히 사용되는 세대에 대한 표현들을 보면 베이비붐세대→ X세대→ 밀레니얼 세대(Y세대)→ Z세대→ MZ세대→ 알파세대→ 삼포, 육포(BTS가 노래한 '쩔어'가사중), 구포세대가 등장했다. 2011년 등장한 삼포세대는 인생에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청년세대를 뜻했고, 5년 후 인간관계와 집을 더해 오포세대로, 꿈과 희망을 더해 칠포로, 외모와 건강을 더해 구포세대로 늘었다. 사회현상에 예민한 언론, 기업, 정치인 집단에서 세대간 차이를 찾아내어 이슈화해 이익을 추구한다. 다양한 논의를 끌어내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세대갈등을 유발하고 고착시키는 부정적 측면이 크다.

얼마 전 35세 핀란드 여성 총리가 광란의 파티를 즐겼다는 기사가 일시에 전 세계적 뉴스거리로 대두됐다. 도덕성 문제로 비화되자 총리 당사자가 직접 의회에서 공무를 수행해야할 시간이 아닌 때에 자신의 개인의 삶을 추구함 또한 중요함을 주장했고 이를 동조하는 여론 또한 상당하다. 직장이나 공무가 우선이며 일방적 충성을 당연하게 여기던 전통적 사고의 시대가 지나고 개인 생활을 중요시하는 '워라벨'세대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한다.

'워라밸'은 영어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즉,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말로써, 우리나라에서는 각 단어의 앞 글자를 조합해 '워라밸'로 쓰인다. 청년세대들은 직장선택에 있어서 연봉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거나, 퇴근 후 업무 지시, 잦은 야근 등으로 개인적인 삶을 포기해야 하는 삶보다 적게 일하고 적당히 버는 쪽을 선호한다. 남은 시간은 휴식과 여행, 취미, 자기계발 등의 개인 생활로 채워진다. '워라밸' 세대의 핵심 가치는 자신(Myself), 여가(Leisure), 성장(Development)이다. 이들 세대는 일 때문에 자기 삶을 희생하지 않으려 하고 조직보다 개인의 삶을 더 중요시한다. 이런 가치의 변화는 많은 돈을 벌기보다는 스트레스 없는 삶을 꿈꾸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한다. 특별한 목적 없이도 공부하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며, 자신에게 선물로 보상도 한다. 개인의 노력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사회 구조에서 큰 성공보다는 소소하고 일상적인 것에서 만족을 찾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워라밸'을 추구하며 '여가' 충족을 위해 스포츠 활동을 선택하고 있다. 간이축구를 즐기고 골프, 낚시, 헬스, 농구, 스쿠버 다이빙, 캠핑, 여행과 같은 활동에 적극적이다. 간이 스포츠 시설과 스포츠 프로그램들이 틈새시장이 되고 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 이들 세대와 전통적 세대를 조화 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사설

태풍전야 초비상, 비바람 피해 대비해야

태풍전야다.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제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한 비바람을 안고 북상중인 힌남노는 타이완 근처에서 방향을 틀고 제주로 북진하고 있다. 힌남노가 다가오면서 제주가 본격적인 영향권에 들어가면 최고 600㎜의 많은 비와 45m/s의 강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힌남노는 북상하면서 태풍의 눈이 점점 더 제주에 근접해 지나갈 가능성이 높아 큰 피해가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힌남노는 4일 오전 3시 기준 대만 타이베이 동쪽 310㎞ 해상을 지나 시속 11km 정도로 느리게 북상중이다. 힌남노는 중심기압 940 hPa, 중심 최대풍속 47m/s, 강풍반경 430㎞로 강도 '매우 강'을 유지하고 있다. 힌남노의 제주 최근접 시점은 6일 새벽 3시쯤으로 서귀포 동쪽 30㎞ 지점인 성산포 앞바다를 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접어드는 5일부터는 최대순간풍속이 40~60m/s를 넘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 예보대로라면 강풍은 2003년 전국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남겼던 '매미'보다도 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힌남노가 제주를 통과할 때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여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 강수량은 2007년 9월 제주를 강타한 태풍 '나리' 수준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올 정도다. 당시 제주의 일 강수량이 기상관측 이래 최고치인 420㎜를 기록, 도심지 모든 하천이 범람하면서 13명이 목숨을 잃었다. 힌남노는 강풍과 폭우를 동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 주변 배수구를 점검하는 등 미리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다수 출자·출연기관 '방만경영' 언제까지

출자·출연기관 다수가 여전히 '방만경영'으로 도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그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가 기대이하로 기관장 문책, 혈세 삭감 등을 요구하는 비난 여론에도 제대로 개선되지 않은 탓이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 출범 후 첫 경영평가서도 다수 기관들의 등급 하락으로 이어진 만큼 강력한 쇄신책을 더 미뤄선 안된다.

도산하 10개 출자·출연기관 2021년 경영실적 평가결과 가등급 1개, 나등급 3개, 다등급 3개, 라등급 2개, 마등급 1개였다. 직전년도 대비 등급 변화 기관은 여성가족연구원 한 곳만 등급 상승했고, 네곳이 하락했다. 등급 하락기관중 경제통상진흥원 3등급,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등급, 제주연구원·문화예술재단 각 1등급씩 떨어졌다. 특히 문화예술재단은 기관·기관장 평가 모두 최하인 마등급이었다. 전임 이승택 이사장 당시 리더십 문제에다 여러 잡음을 겪으며 치욕적 결과를 맞았다. 이번 평가 결과가 평가방법의 변경과 감점요인 작용 탓이란 일부 지적도 있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경영성과가 좋지 않은 상황서 평가 방법을 둘러싼 논란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다수 출자·출연기관 경영 난맥상은 오래됐고, 총체적이어서 문제다. 도의회가 2년전 '밑빠진 독에 물붓기'만큼의 방만경영, 선거공신·지사 측근인사 등을 지적하며 고강도 감사를 할 정도였다. 도는 매번 경영컨설팅, 용역 후 경영개선방안 등 후속조치를 말했지만 가시적 성과를 아직도 볼 수 없다. 도민들의 분노가 출자·출연기관 퇴출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명심할 때다.

열린마당

생명의문 비상구와 신고포상제를 아시나요

김 승 언
제주소방서 아라119센터

비상구란 건물에서 화재나 지진 등 갑작스러운 사고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를 뜻한다. 그러나 우리는 언론을 통해 화재현장에서 비상구 위치를 모르거나 비상구가 막혀있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보도를 적지 않게 들을 수 있다.

비상구의 중요성은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여실히 증명됐다. 사망자 29명 중 유독 2층 여자 사우나에서만 20명이 사망했다. 이들은 비상구가 선반에 막혀 있어 출입구에서 다수가 사망했다. 비상구를 훼손하는 행위는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에 따라 소방서에서 소방시설 폐쇄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의식 제고와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 근절,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 방지, 안전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발견한 이용자라면 누구든지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우리 모두 비상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는 안전한 제주를 위한 의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제주 국회의원들도 태풍 대비 동분서주

지역별 대비 태세 본격

○…제주 국회의원들이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북상을 앞두고 제주에서 지역별 대비 태세를 점검.

제주시갑 송재호 의원은 지난 2일 한림항에서 제주해경과 제주소방 관계자 등과 함께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비책 마련을 논의하고, 정박 어선의 화재 등 사고 예방을 주문.

서귀포시 위성곤 의원은 지난 3일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을 방문해 태풍 대응 상황을 살펴보고, 서귀포해양경찰서를 찾아 선박 피항 상황을 점검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고, 제주시을 김한규 의원은 4일 제주해양경찰청, 제주소방서, 제주동부경찰서 상황실을 방문해 비상상황시 신속 대응을 요청. 부미현기자

태풍에 추석 물류 운송 비상

○…매우 강한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북상으로 제주와 타 지역을 잇는 하늘길과 바닷길에도 차질이 우려되면서 추석을 앞두고 물류 운송에도 비상.

추석을 앞두고 택배물량이 평상시 보다 갑절 늘어났지만 태풍 북상으로 선박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제주지방우정청은 제주에서 타 지역으로 추석 전에 도착하는 소포우편물(택배) 접수를 5일까지 받으려고 했지만 예정보다 사흘 일찍 지난 2일 마감했고 민간 택배 업체들의 상황도 유사.

우정청 관계자는 "앞으로 태풍 추이를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추석 명절 우편물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배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박소정기자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제주고공 민수(前 제주시장, 향년 89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머리 숙여 인사 올립니다.

2022년 9월 5일

부 인 김난실
아 들 고길림 며느리 이명숙
송림 강성숙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고부이공 정부(前 제주도청·향년 71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2년 9월 5일

부 인 김숙자
아 들 이종철 며느리 김미윤
종석 홍현숙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광산김씨 연옥(향년 93세)**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2년 9월 5일

아 들 김남수 며느리 김영희
딸 김순자 사 위 채상일
순옥 고산봉
순심 부황평
순화
순애 오세영
순희 이윤형
순금 강경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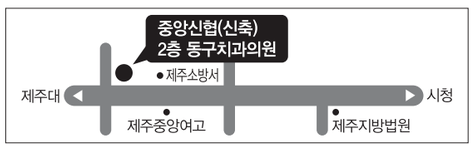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의 료 안 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23-중-3524호
동구치과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 장 신 동 구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앙신협 2층)
☎ 756-2833